

社 說

불우이웃돕기 창구

우리 주변에는 성실하게 일하고도 돈이 없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불의의 사고를 당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도심에서 살다가 실과하여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직업을 못하고 자식들만 부모님에게 맡기고 다시 도시로 나가 사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지는 삶에 하소연 할 데 없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이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다.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는 2004년11월에 그 문을 열었다. 그동안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또 지역에서 홀로 살면서 뚜렷한 수입이 없어 항상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찾아 쌀과 성금과 양말, 그리고 전기장판, 담요 등을 전달했다. 전달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창구 개설을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들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창구에 성금이나 물품을 기탁하는 사람들의 풍성한 마음도 있다. 비록 생활이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열심히 활동하면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맡겨주시는 고마운 분들의 손길이 없었다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제일사우나를 운영하시다가 경영이 어려워져 정리하고 수원으로 이사해 대형사우나를 운영하시는 고남석 대표는 입찰하는 손님 1인당 100원씩을 적립하여 매월50~60만원의 성금을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기탁했다. 수원으로 이사한 후 모아진 금액을 잊지 않고 통장에 입금하는 정성을 보여주었다. 본지 자문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100만원씩을 불우이웃

기 창구에 기탁하고 있으며 주부명예지킴이는 전달해야 할 대상을 파악해서 추천하는 일을 맡았다.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아는 분이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지 잘 알기 때문이다. 또 조사위원회 또한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최초로 개설하는데 앞장섰으며 김중현 고문은 매월 20만원씩의 성금을 자동이체로 기탁하고 있으며 주변에 뜻 있는 사람들에게 자동이체를 권유하고 있다. 또한 본지 운영위원들의 개별적인 참여, 특별한 경우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보탬을 주고 있다.

본지는 이들의 고마운 뜻을 널리 알리고 기록하기 위해 1면에 지면을 할애하여 도와주시는 분과 도움을 받으신 분들의 명단 그리고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지금의 남의 도움을 받는 형편이지만 나중에 훌륭한 사회지도자가 되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한다.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엿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을 맞이하고 있으며 다음달에는 설날 명절을 앞두고 있다. 명절이 돌아오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 소외감이 더욱 깊어진다. 너무 깊어져 힘들지 않도록 주변에 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본지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추천하면 도와줄 수 있다.

참고 외로운 이웃에게 따뜻한 정겨운 선물을 전달하는 일에 포천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길교통량 유인선 대표는 두 차례에 걸쳐 양말 700켤레를 기탁했다. 성금이나 쌀에도 감동받지만 양말전달에 더욱 감동받는 독거노인들을 만날 때 도움을 주신 손길이 더욱 고맙게 다가온다.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포천시민 모두 애용하기를 기대한다.

예비후보 본격적인 표발같이 '시동'

자신만이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 강조

4월9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예정인 한나라당 소속 차상구 예비후보와 박윤국 예비후보가 포천과 연천지역에서는 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지난 15일 사무소 개소식을 가진 차상구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은 그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포천과 연천은 아직도 저발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서 우리아이들에게 까지 현재와 같은 상태를 물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신과 같은 경제전문가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사무소 개소식을 가진 박윤국 예비후보는 "연천포천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소외 받았다"면서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라도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20여년간 쌓아온 경험과 경륜을 갖춘 본인이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차상구 예비후보 사무소 개소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포천시연천군 선거구에서 출마예정인 한나라당 차상구 예비후보가 1월15일 신원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지역주민들과 한나라당 중앙당 당직자 및 미국 시카고 한인회장 등 차상구 예비후보와 친분이 있는 인사들이 많이 참석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전하기를 기원했다.

차상구 예비후보는 참석자들에게 "경제학을 전공했고 미국에서 공인회계사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성공 신화를 만들었다"면서 "포천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전문가가 필요하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경제정책을 추진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윤국 예비후보 사무소 개소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포천시연천군 선거구에서 출마예정인 한나라당 박윤국 예비후보가 1월17일 군내면 하성북리 자신의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포천지역 각급 단체장과 박윤국 예비후보 지지자 및 평소 친분이 두터운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전해 줄 것을 기원했다.

박윤국 예비후보는 참석자들에게 "포천에코디자인 시티조성 사업 등 전직 시장으로서 많은 일을 해 왔다"면서 "그러나 시장으로서 포천시를 위해 일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다. 국회에 들어가 연천과 포천을 새로 운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고 출마동기를 밝혔다.

태안바다 살리기에 포천시의원 동참

기름유출현장 방문 갯벌 기름띠 제거 활동

2008년 1월 17일 포천시의회의원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등 20여명이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 현장에 내려가 태안반도 살리기 운

동에 동참했다.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개목항 해안가로 이날 새벽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의 모범을 보였다. 이날 이들은 갯바위와 자갈에 묻어



2008년 1월 17일 포천시의회의원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등 20여명이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 현장에 내려가 태안반도 살리기 운동에 동참했다.

있는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태안반도 갯벌의 자연을 복원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날 갯벌의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모인 전국 각지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속에서 이강립 포천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정종근 행정자치위원장, 이종호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이 자원봉사의 모범을 보였다.

이강립 포천시의회의장은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서해안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우리들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어 갯바위의 기름지국 하나라도 더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자원봉사를 계획했다"며 자원봉사에 동참한 동료의원들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 봉사자는 "TV로 봤을 때는 사고현장이 어느 정도 수습되고 정리된 줄 알았는데 현장에 내려오니 너무나 심각한 기름유출피해에 놀랐다. 생계를 위해 기름제거작업을 매일 하는 태안 현지 주민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프다. 국가적인 지원이 너무 절실한 것 같다"며 자원봉사의 동참을 호소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특별기고

금년 포천시 선거와 관련해 드리는 당부 말씀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금년 4월9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6월4일에는 포천시 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포천시의 두 선거는 공천과정이나 선거운동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으로 그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과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서 포천시 공무원 여러분들과 후보예정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은 당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이번 선거에서는 특별히 포천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특정후보자와 줄을 대기 위하여 특정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 등의 선거운동을 하다가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거에서 포천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아니하면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포천시 행정의 파행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올 염려가 큼으로 우리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다음 후보예정자 여러분들께서도 공천과정에서나 선거운동과정에서 금품수수나 지리약속 등을 통한 선거법위반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는 당선된 후에도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 우리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엄정하게 조사하여 고발 내지 수사의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보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포천시의 국가의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상세한 선거공약을 제시하고 선거법이 허용하는 정당당당한 선거운동을 하여 주시고 상대방의 비방이나 허위사실의 유포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선거운동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선거운동 행위가 당선된 후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되어서 당선 무효의 형의 선고가 확정됨으로써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한 아픈 전례가 있습니다.

포천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이 지역 주민의 대표자를 우리의 손으로 뽑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포천시의 국가의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투표에 꼭 참여하십시오. 물론이고 선거과정에서도 혹시라도 부정행위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하는 후보자가 있을 시에는 우리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익명으로라도 꼭 제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정선거감시단에도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된 사람은 거의 대부분 구속되어 엄한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이번 두 선거가 아무런 사건이나 사고없이 치러져서 한 건의 고발이나 수사외할 사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선거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전혀없는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포천경찰서 전의경 어머니회 정기회의

포천경찰서 전의경 어머니회(회장 한명숙)는 1월 9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2008년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의경어머니회의 2007년도 활동상황 및 2008년도 중점추진 사항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김귀찬 포천경찰서장은 전의경의 사기진작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전의경 어머니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이에 어머니회도 앞으로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전의경의 사기, 복지 및 자체사고를 예방

하는데 일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어머니회 정기회의 직후 전의경 내부에서 어머니회 회원들이 손수 준비한 떡 만두국을 함께 나누어 먹었으며, 포천경찰서 전의경들은 어머니회 때문에 어려운 군 생활에 많은 위안이 된다. 친어머니의 정이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게 생활하여 전역하는 그날까지 자체사고 없는 포천경찰서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도 되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신문 www.ipcs21.com
등록번호 경기 가 5007 2000. 8. 18 등록
발행처: (주)포천신문사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7동 701호 / 월 50,000원 / 년 500,000원 / 평생 5,000,000원
대표전화 (031)542-1507
편집국 (031)542-1506
광고접수 (031)542-9888
구독신청 (031)542-9889
FAX (031)541-9117

언제나 바른뉴스! 포천신문
www.ipcs21.com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및 시사 관련 사항을 포함한 포천시를 중심으로 인접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의 시·군정을 해설·소개하고, 시·군내의 각종 행사와 유명 인사를 소개하며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을 신청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1월 10일 ~ 1월 20일까지)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을 신청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1월 10일 ~ 1월 20일까지)
- 포천신문 임직원 올림 -
최근발행현황
2008. 1. 10 포천신문 제400호 발행
2008. 1. 21 포천신문 제401호 발행
2008. 1. 30 포천신문 제402호 발행예정
구독료 입금계좌 : 농협(585-17-004213) 예금주 : (주)포천신문사